

고교에서 시작한 더블베이스 치열한 연습으로 대입 넘었죠



선배들의 전형별 합격기
실기전형 ⑧



이채현
서울대 관현악과
더블베이스전공 2학년
(서울 대원여고)

고교 첫 진로 상담이 인생의 향로를 바꿨다. 국악 전공으로 음악중점학교인 서울 대원여고에 입학한 채현씨는 학기초 국악이 내 길이 아니라는 회의감에 진로 상담을 요청했다. 40년 차 베테랑 음악 교사는 채현씨에게 더블베이스를 권했고, 더블베이스 소리를 처음 듣는 순간 매력적인 선율과 깊은 울림에 마음을 뺏겼다. 일사천리로 전공을 바꿨지만, 마음에 드는 소리를 내는 건 쉽지 않았다. 매일 5분씩 연습량을 늘려 막판에는 하루 12시간씩 연습에 매달렸다. 피나는 노력은 합격의 기쁨으로 돌아왔다. 수시전형으로 서울대 관현악과에 입학한 채현씨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취재 김성미 리포터 grapin@naeil.com

Q. 수시 실기전형이 주력 전형이었나?

처음에는 연세대 음대가 목표였어요. 연세대는 정시로 신입생을 뽑기 때문에 초반에는 내신보다 수능 공부에 더 신경 썼어요. 시험 기간에도 1시간씩 수능 문제집을 풀었죠. (웃음) 실기 실력이 늘면서 수시로만 뽑는 서울대 관현악과도 눈에 들어왔어요. 결국 내신 공부에 수능 준비에 실기 연습까지, 바쁜 학창 시절을 보냈죠.

서울대는 1단계에서 실기 100%로 모집 인원의 2.5배수를 뽑아요. 말이 2.5배지 3명을 모집하니 사실상 실기로 7명 안에 들어가야 해요. 2단계에서는 서류 평가 60%에 실기 40%를 보죠. 서울대를 희망한다면 수학과 과학, 예체능 성적까지 두루 신경 쓰는

게 좋아요. 전 과목이 평가 대상이거든요. 리더십과 공동체 의식도 중요해요. 고교 시절 반장을 두 번 맡았는데, 힘들긴 해도 맡길 잘한 것 같아요. 결국엔 실기가 합격을 좌우하지만요.

Q. 실기 실력을 어떻게 쌓았나?

학교의 도움이 컸어요. 모교인 대원여고는 음악중점학교라 연습실이 잘 갖춰져 있고 전공 실기 수업도 다양해요. 전공 커리큘럼도 예술고와 비슷한 수준이고요. 학교에서 제공하는 전문 강사의 레슨도 큰 도움이 됐어요. 오케스트라 활동과 정기연주회 경험도 빼놓을 수 없죠.

더블베이스는 연습량이 많을수록 실력이 빨리 향상

실기 대비 전략

TIP

“기본기와 표현력 두루 챙겨야”

악보 분석 더블베이스는 현악기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낮은 음을 내는 악기다. 오케스트라에서 더블베이스는 풍성한 울림과 깊이 있는 음색으로 전체 음향의 기초를 다진다. 리듬도 중요하다. 메트로놈과 함께 연습하면서 정확하게 음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양한 음정을 정확하게 연주하기 위해서는 스케일 연습이 필수다. 단단하고 안정적인 소리가 날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해야 한다. 기본기를 챙겼다면 이젠 깊이 있는 곡 해석과 테크닉, 표현력에 집중해야 한다.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연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다.

“작은 성공의 경험 쌓이면 자신감 ↑”

목표 설정 악기 연습을 하기 전에 매일 작은 목표를 정해 차례차례 지켜 나가면 동기부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준비 과정 하나하나가 작은 성공의 경험이 되고, 이런 경험이 쌓이면 자신감과 효능감이 올라간다. 불가능해 보이는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하루에 5분씩 연습시간을 늘리겠다는 작은 다짐 하나면 충분하다. 5분이 쌓여 1시간이 되고, 꾸준한 연습으로 쌓인 체력은 힘든 입시를 버티는 막강한 무기가 된다. 지역 오케스트라나 연주회에 참여해 공연 경험을 쌓는 것도 음악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

되는 악기에요. 꾸준한 연습만이 살길이죠. 연습실 벽에 동기부여가 될 만한 사진을 붙여서 목표를 다지는 것도 좋아요. 희망하는 대학과 부모님, 소중한 친구들의 사진을 붙였는데, 연습하다 고개를 들면 눈이 마주쳐 마음을 다잡는 데 도움이 됐어요. 매일 마지막까지 남아 연습실 불을 끄고 나갔죠. 뿌듯했어요.

Q. 학교 공부는 어떻게 했나?

학교 수업에 충실했던 게 내신 공부 비법인 것 같아요. 프린트와 부교재를 잘 챙겨 시험 기간에 꼼꼼히 보는 건 필수고요. 가끔 정시 준비를 핑계로 내신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저만 해도 수능을 준비했지만 결국 수시로 대학을 갔잖아요. 악기 연습이 1순위가 해도 시간을 잘 쪼개면 공부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스터디 플래너에 계획을 세우고 앱 ‘열풍타’로 시간을 재 과목별 학습량을 체크했어

요. 고1 때 중요한 건 시행착오를 거쳐 자신만의 페이스를 찾는 거예요. 시간을 배분하는 요령을 익히는 시기죠. 더블베이스가 워낙 큰 악기다 보니 연습실에 악기를 두고 다녔어요. 집까지 1시간 정도 걸렸는데, 그 시간에 과목별 주요 개념을 정리하고 단어를 외웠죠. 단, 내신 기간에도 악기 연습을 빼먹지는 않았어요. 손의 감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Q. 후배들에게 해주고픈 조언이 있다면?

수능이 끝나면 곧 2차 실기 평가가 시작됩니다. 불안한 마음에 자신감을 잃는 수험생도 많은데 부정적인 감정은 결국 부담감을 키우게 되죠. ‘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루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렸다고 하잖아요. 또 실전에서 제 실력을 100% 발휘하려면 컨디션 관리가 중요해요. 연습도 좋지만 시험 직전에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노력한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